

전남, 농기계 임대 농민 갈수록 늘다

구입비·인건비 부담 줄고 사용료 저렴

전화로 현지 운송 원스톱서비스 편리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지급 및 농기계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하려는 농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남지역 각 시·군이 임대사업소를 거점 면 단위까지 설치하고, 원스톱 서비스까지 실시하면서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동수동 본점과 급전면, 봉황면 등 3곳으로 늘리면서 임대농가는 지난 2011년에 1400개 농가에서 2012년 2987개 농가, 2013년에는 4099개 농가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농기계 구입비용도 매년 150억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 민

선 5기 들어 영농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을 꼽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정의 10대 역점시책 및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농기계를 대량 구매해 각 거점에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민에게는 토·일요일 휴일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대농과 중소농, 젊은층과 고령층, 일반 농가와 특화작물 재배 농가 등 농업 규모·연령·양태 등에 맞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나주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타 지역 농업인에게도 임대해 주는 등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다음달 문평지역 사업소가 문을 열면 나주지역 내 4곳에서 모두 1120대의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8일 “올해부터 임대농기계 트랙터 외 52종 231대를 운반차량 4대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운송에서 사용교육, 회수까지 등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장과 거리가 먼 오지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시비 3억원을 투입해 운반차량을 구입했다. 서비스는 농한기철은 주중에만, 농번기철에는 주말까지 휴무 없이 실시된다. 이용 희망자는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sca/>)에 회원가입 후 임대농기계 사용예정 3일 전 신청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u@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사랑의 헌혈 목포시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8일 목포시청, 목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에는 목포시청 공직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목포=임영호기자 lyc@kwangju.co.kr



툏아 잘 자라거라 7일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주민들이 바위에서 갓 뜯어 온 톏 포자(원초)를 양식용 줄에 부착하고 있다. 오는 7월 톏이 완전히 여물 때까지 바다에 그대로 놔둬다 가 수확한다. /연남뉴스

강진청자축제 포스터 29일까지 공모 합니다

강진군은 “오는 7월 개최하는 제 42회 강진청자축제와 제1회 한중일 도자문화축제의 프로그램과 포스터를 8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내용은 축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흙·불·그리고 인간’이라는 축제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참신성과 독창성을 갖춰야 한다. 선정작은 개별 통지와 함께 강진군 홈페이지와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선정된 업체에 포스터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납품권을 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도축제추진위원회(061-430-3332~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신안 왕새우 양식사업인 친환경 미생물제 사용결의

신안군 8월 “지난 7일 지역 왕새우 양식사업인 70여명이 올해부터 친환경 미생물제 사용을 대폭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왕새우 양식규모는 113개 어가, 506ha로 연간 1500t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새우양식(대하)은 항생제 사용, 밀식과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양식 실패사례가 많았으나, 흰다리 새우로 품종이 대체되면서 바이러스에 강하며, 대하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 생산량이 늘고 있다. 신안군은 어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유기수산물 인증지원 확대, 친환경 미생물 배양장 설치, 유통 및 저장시설 확충 등으로 친환경 왕새우를 신안군의 주요 수산물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여수, 15만t급 크루즈 정박 시설 건립

내년까지 134억 들여 항만 준설... 크루즈관광 활성화 기대

여수시가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크루즈항 증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여수시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다음달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비 134억원을 투입, 15만t급 이상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항 증설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증설사업을 통해 부두와 부대시설의 기능보강 공사인 길이 400m의 안벽을 정비하고 항만 수심또한 최대 12m까지 확보해 안정적인 접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8만t급 1선석 규모의 크루즈 부두를 갖춘 여수신항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7만5000t급 이탈리아 코스타빅토리아호를 비롯해 12차례 크루즈유람선이 입항하는 등 성공박람회이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제미니호 등 4개 크루즈선이 12차례에 걸쳐 2만1400여명의 관광객을 실어 날랐으며, 올해 또한 10회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슈퍼스타제미니호 동아시아 운항 계획이 전면 취소되는 등 현재 2만급 니폰마루호의 단 한 차례 입항만 확정된 상태다. 여수시는 접안시설 부족 때문에 대형 크루즈선 유치에 통한 크루즈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한계점을 맞게 되자 정부예산 요구 및 사

업 실행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11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작한 여수 크루즈항 준설사업은 그동안 관련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해 12월 국비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크루즈항 준설사업과 병행해 국비 50억원을 투입, 국제여객 부두 카페터 차량 선적시설 등도 설치

한다는 방침이다. 최문홍 해양항만관리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도 시비 8억2500만원을 투입해 크루즈 관광종합안내센터 등 관련 시설 건립과 지원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며 “이번 크루즈항 증설사업이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에 ‘대들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지난해 3월 여수항에 입항한 이탈리아 코스타 크로시에레사의 ‘코스타 빅토리아’호의 전경.

목포시, 시내버스 현금 수입 투명성 확보 나섰다

내달부터 수입금 확인제 시행... 감독단체 공개 모집

목포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현금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목포 유진·태원운수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55%(8억9000만원), 현금은

45%(8억1000만원)로 현금 비율이 다른 지방보다 높아 다음달부터 ‘현금 수입금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금 수익금을 확인하고 감독할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목포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상시 10명 이상 확인요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 선정된 시민단체는 시와 협약 체결 후 1년 동안 시내버스업체에 상주하면서 차량별 수입금 집계 등 현금 수입 상황을 총감독한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지난해 적자노선 지원금 21억원, 환승 보조·카드할인 보전 18억원, 저상버스(17대) 운영비 2억원 등 모두 41억원을 지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담양·구례 친환경농업 육성 설명회

올 추진 사업 의견 수렴

담양군은 8일 “9일 오후 2시 담양 문화회관에서 ‘2014년도 농경분야 주요지침 설명회’를 개최 주요 지원사업 설명과 함께 농정현안에 대한 논의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군·읍면 자치농정위원, 품목별 대표 농업인, 농·축협장, 참여 희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추진되는 농경분야 주요 169개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농정현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정정책 관련사업 21종, 친환경 원예사업 19종, 농산사업 24종, 농식품 유통사업 20종, 말산업 축산사업 25종, 친환경 한우사업 26종 등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구례=이성구 lsg@kwangju.co.kr

구례군도 지난 7일 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위원장 김재홍 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홍 부군수를 비롯해 구례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 농정지원단장, 친환경농업단체, 농업인 등이 참석해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의 문제점과 소비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농가의 노령화로 인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 등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은 올 하반기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구례=이성구 lsg@kwangju.co.kr

완도·화흥포항 양식어장 경계표지 설치

목포항만청, 해양사고 방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렬)은 8일 “완도항과 화흥포항 양식어장 인근에 양식어장 경계표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포항만청은 최근 주요 항로 인근에 양식어장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선박과 양식어장의 충돌에 따른 해양사고가 늘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어장이 많은 완도항과 화흥포항 진입항로에 각각 4기씩의 양식어장 경계표지를 설치했다. 경계표지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에서 권고하는 표준규격에 따랐다. 목포항만청은 3개월 정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양식어장 경계표지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태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은 “양식어장 경계표지의 설치로 해양사고도 줄고 어민들의 재산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안전의 위해요소들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한국사회 투명성 강화, 청렴문화 확산

장성군-부패학회 MOU

장성군 청렴문화센터는 8일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부패학회(회장 윤은기)와 한국사회 투명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과 (사)한국부패학회는 정책 포럼 및 토론회의 지원,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및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청렴문화 체험교육 확산, 반부패 국제교류 추진 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

은 다음달 ‘청렴·반부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청렴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반부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부패학회는 지난 1995년에 설립된 단체로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학술단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새 얼굴

“소통·회합으로 지역 발전 이끌것”

박종호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서로 소통하는 업무추진과 회합으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의 위대한 결실을 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종호(52)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은 직원 간, 직원과 지역 농업인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신안 출신인 박 지사장은 조선대를 졸업하고 지난 89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 공무원장과 기술본부 설계전

단장 등을 역임했다. 농어촌공사 최초로 ‘대한민국품질명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들과 함께 타고난 업무추진력이다 청렴결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인 장미경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